

2021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

자료제공_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12월 경매 결과까지 포함한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최종 연말결산이 발표됐다. 집계 결과 연 매출 규모가 지난해의 약 3배, 지난 5년간 최고 수준인 **약 3294억원**이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이사장 김영석)와 아트프라이스(대표 고윤정)가 2021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최종 연말결산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낙찰총액은 국내 경매사 8곳의 총합 **약 329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53억원, 2019년 1565억원, 2018년 2194억원, 2017년 1900억원, 2016년 1720억원 등에 비교해 유례없이 압도적인 급팽창세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김영석 이사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의 경기불황 속에서 미술시장 경기는 지난해 대비 3배 가깝게 확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상반기 ‘이건희컬렉션 기증’이 미술품 수집에 대한 긍정적인 대중의 인식전환에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온라인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 중심의 수요층 세대교체 바람의 급물살 역시 후폭풍 역할로 작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매중심으로 일부 젊은 작가에 대한 지나친 과열현상은 미술품 투기의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8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에이옥션, 칸옥션, 꼬모옥션)에서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의 분석결과이다. 참고로 ‘에이옥션’의 12월29~30일 온라인 경매는 일정상 제외되었다.

전체 집계결과 ‘**총 출품작은 32,955점 · 낙찰작 22,235점 · 낙찰률 : 67.47%**’ 등으로 집계됐다. (2020 = 총 출품작: 30,276점. 낙찰작: 18,349점. 낙찰률: 60.61% / 2019 = 총 출품작: 25,962점. 낙찰작: 17,279점. 낙찰률: 66.55% / 2018= 총 출품작 : 26,290점. 낙찰작 : 17,175점. 낙찰률 : 65.33% / 2017= 총 출품작 : 28,512점. 낙찰작 : 18,623점. 낙찰률 : 65.3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고, 가장 높은 낙찰률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낙찰총액 역시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올해의 미술시장은 이전의 2007년 전후 못지않은 ‘제2의 확장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찰총액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우환이 약 394억 8770만원**이 차지했으며, 낙찰률도 81.66%로 매우 높았다. (2020 = 낙찰총액 1위-이우환 약 149억7000만원, 낙찰률 78.95% / 2019= 낙찰총액 1위-김환기 약 249억6000만원, 낙찰률 72.95% / 2018= 낙찰총액 1위-김환기 약 354억7000만원, 낙찰률 81.68% / 2017= 낙찰총액 1위-김환기 약 253억9800만원, 낙찰률 76.22%)

또한, **작품별 최고 낙찰가 1위**도 지난해에 이어 **쿠사마 야요이가 약 54억5000만원**으로 차지했다.(2020= 쿠사마 야요이 약 27억8800만원, 2019= 르네 마그리트 약 72억4750만원, 2018= 루이스 부르주아 약 95억1400만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이우환과 쿠사마 야요이의 해”라고 할 만큼, 두 작가의 비중이 크게 작용했다. 낙찰총액 1위를 차지한 이우환 경우 지난해 대비 무려 2.6배 상승했고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다. 최고 낙찰가 30순위에서도 두 작가가 16점(이우환7점/쿠사마9점)으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 강세를 보였다.

이번 결산에는 국내 경매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①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②경매사별 비중도, ③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가 30순위, ④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⑤장르별 비중도” 등이다. 보다 자세한 항목별 안내는 다음과 같다.

1. 경매사별 총 거래량 및 낙찰률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서울옥션	166,648,733,580	6,957	5,544	79.69
K 옥션	136,008,527,000	14,157	8,273	58.44
마이아트옥션	9,274,636,483	1,036	682	65.83
아트데이옥션	8,731,630,000	3,030	1,976	65.21
아이옥션	4,592,120,000	3,590	2,728	75.99
에이옥션	2,888,210,000	3,367	2,605	77.37
칸옥션	1,232,400,000	532	343	64.47
꼬모옥션	58,430,000	286	84	29.37
총합계	329,434,687,063	32,955	22,235	67.47

올해는 낙찰총액 기준 **약1666억원으로 서울옥션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의 434억원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운 급성장세이다. 지난해 약517억원으로 1위였던 K옥션도 1360억원으로 2.6배 상승 수치를 보이며, 양사의 낙찰총액만으로도 약300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출품수가 서울옥션(6,957점)의 경우 온라인 경매의 절대강자인 K옥션(14,157점)에 비해 50% 수준이었음에도 전체 낙찰총액에서 큰 우위를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다. 아래 표는 지난 5년간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경매사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서울옥션	166,648,733,580	6,957	5,544	79.69
	2020 = 43,414,099,442	4,230	2,929	69.27
	2019 = 82,285,770,520	3,800	2,839	74.71
	2018 = 128,607,543,740	4,008	2,419	60.35
	2017 = 94,959,967,630	4,982	3,465	69.55
K 옥션	136,008,527,000	14,157	8,273	58.44
	2020 = 51,738,899,000	14,043	7,352	52.35
	2019 = 57,409,564,000	8,758	5,842	66.70
	2018 = 71,474,360,000	8,471	5,959	70.35
	2017 = 73,897,360,000	7,906	5,764	72.91
마이아트옥션	9,274,636,483	1,036	682	65.83
	2020 = 7,595,250,000	679	443	65.24
	2019 = 4,938,910,000	566	348	61.48

	2018 = 4,178,150,000	820	523	63.78
아트데이옥션	8,731,630,000	3,030	1,976	65.21
	2020 = 5,120,720,000	1,890	1,072	56.72
	2019 = 3,238,490,000	1,916	1,238	64.61
	2018 = 7,202,100,000	2,314	1,634	70.61
아이옥션	4,592,120,000	3,590	2,728	75.99
	2020 = 3,949,460,000	3,783	2,870	75.87
	2019 = 3,805,420,000	4,257	2,764	64.93
	2018 = 3,379,960,000	4,245	2,943	69.33
에이옥션	2,888,210,000	3,367	2,605	77.37
	2020 = 2,718,630,000	4,570	3,249	71.09
	2019 = 3,689,450,000	5,156	3,682	71.41
	2018 = 3,231,330,000	4,213	2,970	70.5
칸옥션	1,232,400,000	532	343	64.47
	2020 = 673,600,000	456	266	58.33
	2019 = 943,450,000	502	293	58.37
	2018 = 1,145,250,000	638	358	56.11
꼬모옥션	58,430,000	286	84	29.37
	2020 = 80,430,000	625	168	26.88
	2019 = 180,920,000	1,007	273	27.11
	2018 = 114,950,000	1,024	308	30.08
총합계	329,434,687,063	32,955	22,235	67.47
	2020 = 115,291,088,442	30,276	18,349	60.61
	2019 = 156,491,974,520	25,962	17,279	66.55
	2018 = 219,363,483,740	26,290	17,175	65.33

2. 2021년 경매사별 비중도



경매사별 상위 5순위 비중도를 살펴보면, '서울옥션 50.6% - K옥션 41.3% - 마이아트옥션 2.8% - 아트데이옥션 2.65% - 아이옥션 1.4%' 순이었다. 결국 서울옥션과 K옥션 양사가 92%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 및 쏠림 현상을 기록했다.

3. 2021년 국내 미술품경매 낙찰가격 30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규격(cm)	재료	제작 년도	낙찰가	옥션사	날짜
1	쿠사마 야요이	Pumpkin	116.5×91	캔버스에 아크릴릭	1981	5,450,000,000	서울옥션	11.23
2	마르크 샤갈	Les Jardins de Saint Paul	81×116	캔버스에 유채	1973	4,200,000,000	K 옥션	05.26
3	김환기	1-VII-71 #207	170×91.5	코튼에 유채	1971	4,000,000,000	서울옥션	08.24
4	쿠사마 야요이	Gold Sky Nets	112×145.5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5	3,650,000,000	서울옥션	10.26
5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WFTO)	130.3×130.3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	3,100,000,000	서울옥션	07.29
6	이우환	East Winds	224×181	캔버스에 광물 안료, 유채	1984	3,100,000,000	서울옥션	08.24
7	김환기	27-XI-71 #211	176.3×126.3	코튼에 유채	1971	3,050,000,000	서울옥션	06.22
8	쿠사마 야요이	Silver Nets(BTRUX)	130.3×130.3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4	2,900,000,000	서울옥션	06.22
9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KPEU)	111.9×145.8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6	2,550,000,000	서울옥션	08.24
10	이우환	From Line	182.6×226.5	캔버스에 아크릴릭	1982	2,350,000,000	서울옥션	12.14
11	쿠사마 야요이	Infinity Nets(GKSG)	162×162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0	2,300,000,000	서울옥션	03.23
12	마르크 샤갈	Le couple au-dessus de Paris	64.8×80.5	캔버스에 유채	1980 년대	2,300,000,000	서울옥션	06.22
13	쿠사마 야요이	Infinity-Dots (AB)	162.2×130.5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3	2,250,000,000	K 옥션	12.22
14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OWTTY)	130.3×162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7	2,200,000,000	서울옥션	06.02
15	이우환	From Point	80×80(2ea)	캔버스에 광물 안료, 유채	1975	2,200,000,000	서울옥션	06.22
16	김홍도, 이인문	송석원시사야 연도/송석원 시회도	31.8×25.5 (2ea)	종이에 수묵담채	1791	1,900,000,000	서울옥션	10.26
17	김환기	무제	127.3×177.4	캔버스에 혼합재료, 유채	1967	1,650,000,000	서울옥션	02.23
18	알렉산 더칼더	Boomerangs and Targets	83.2×127× 76.2(h)	혼합재료	1973	1,600,000,000	K 옥션	07.23
19	이중섭	가족	41.2×28.8	종이에 유채	1954	1,550,000,000	서울옥션	06.22
20	이우환	점으로부터	227.3×181.8	캔버스에 안료	1980	1,350,000,000	K 옥션	06.23
21	쿠사마 야요이	Infinity Nets(ZZOOX)	116.8×91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6	1,310,000,000	K 옥션	03.17
22	이우환	바람과 함께	181.8×227.3	캔버스에 안료	1987	1,300,000,000	K 옥션	03.17
23	이우환	From Line	130×162	캔버스에 광물 안료, 유채	1978	1,300,000,000	서울옥션	06.02
24	유영국	영혼	129.3×161.2	캔버스에 유채	1965	1,270,000,000	서울옥션	06.22
25	박서보	묘법 No.200~86	165×260	코튼에 연필, 유채	1986	1,200,000,000	서울옥션	10.26
26	정상화	무제 96-5-14	259.1×193.9	캔버스에 아크릴릭	1996	1,100,000,000	K 옥션	06.23
27	김창열	물방울	161.5×115.7	마포에 유채	1977	1,040,000,000	서울옥션	02.23
28	김환기	무제	61.4×91.8	캔버스에 혼합재료, 유채	1960 년대 중반	980,000,000	서울옥션	03.23
29	이우환	점으로부터 No.770101	181.8×227.3	캔버스에 안료	1977	980,000,000	K 옥션	07.23

30	박서보	묘법 No.1-79-81	130.3×193.9	마포에 유채, 연필	1979 ~81	950,000,000	K 옥션	05.26
----	-----	------------------	-------------	---------------	-------------	-------------	------	-------

낙찰가 기준 1위를 차지한 쿠사마 야요이는 30순위 중 3분1인 가까운 9점을 올렸으며, 국내 작가 중 1위인 이우환 역시 7점을 올려 두 작가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4점을 올린 김환기, 각각 2점을 올린 마르크 샤갈과 박서보가 눈에 들어온다.

4. 2021년 낙찰총액 30순위 작가 비교

순위	작가명	낙찰총액(원)	출품수	낙찰수	낙찰률(%)
1	이우환	39,487,740,050	507	414	81.66
2	쿠사마 야요이	36,527,945,800	238	199	83.61
3	김환기	21,411,268,200	179	129	72.07
4	김창열	20,060,392,025	485	424	87.42
5	박서보	19,628,850,000	246	222	90.24
6	정상화	8,360,000,000	78	63	80.77
7	마르크 샤갈	7,112,340,000	33	22	66.67
8	이영배	5,927,941,200	117	112	95.73
9	윤형근	5,362,400,000	50	48	96
10	우국원	4,831,600,000	64	64	100
11	아야코 록카쿠	4,010,818,100	48	45	93.75
12	김중학	4,008,912,000	197	163	82.74
13	김태호	3,999,120,000	166	139	83.73
14	유영국	3,643,600,000	98	91	92.86
15	이건용	3,622,400,000	148	147	99.32
16	요시토모 나라	3,361,540,000	186	121	65.05
17	데이비드 호크니	3,288,310,000	74	66	89.19
18	박수근	2,930,190,000	91	60	65.93
19	이중섭	2,760,280,000	13	9	69.23
20	하종현	2,726,720,000	35	33	94.29
21	이강소	2,703,800,000	65	57	87.69
22	문형태	2,438,924,800	305	303	99.34
23	최영욱	2,219,700,000	105	104	99.05
24	조지 콘도	2,011,000,000	5	4	80
25	이대원	1,924,230,000	219	147	67.12
26	김홍도, 이인문	1,900,000,000	1	1	100
27	하태임	1,883,826,800	112	107	95.54
28	이왈종	1,790,173,830	361	266	73.68
29	게르하르트 리히터	1,669,200,000	22	15	68.18
30	알렉산더 칼더	1,644,600,000	15	10	66.67

작가별 낙찰총액 30순위에선 지난해에 이어 이우환이 약395억원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2위 쿠사마 야요이 약365억원, 3위 김환기 약214억원 등을 차지한 작가들도 지난해 대비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줬다. 1~5위 작가들이 모두 약 200억원 이상 보인 점도 주목된다. 특히 30순위 중 국내 생존작가가 14명으로 약 50%를 차지했으며, 우국원(10위)·문형태(22위)·최영욱(23위)·하태임(27위) 등 젊은 작가들의 강세가 눈길을 끌었다.

5. 장르별 비중도



현재 미술품 경매에서 장르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회화부분이 지난해와 같았고, 2위는 판화가 21%로 지난해(14%) 비해 큰 폭으로 많아졌다. 이는 온라인 옥션 확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